

# 향긋한 커피향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도시,

호주의 작은 도시 프리맨틀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긴다. 그리고 눈을 뜨면 풍성한 거품에 향기를 솔솔 뿜어내는 카푸치노 한 잔이 눈앞에 놓여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투명한 햇빛이 찬란하게 쏟아지는 낭만적인 도시, 호주 프리맨틀. 프리맨틀은 한 마디로 '예쁘고 아담한 도시'다. 그러나 수많은 예쁜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 그곳에 사는 이들도, 그곳을 여행하는 이들도 마치 낭만을 좇는 이들과처럼 일상이 여행이 되고 여행이 일상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도시다.

# 호주 프리맨틀



## 여행

• 호주  
프리맨틀

글  
• 채지형  
여행작가  
[www.traveldesigner.co.kr](http://www.traveldesigner.co.kr)



### 19세기 고풍스러운 항구도시

프리맨틀은 호주의 가장 서쪽, 서(西)호주의 주도(州都)인 퍼스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의 80% 정도가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19세기의 멋들어진 항구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호주 사람들의 프리맨틀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서호주 사람들은 프리맨틀을 '프리오(Freo)'란 애칭으로 즐겨 부른다. 도시에 별명을 붙이는 일은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퍼스 사람들은 한여름 이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프리맨틀 닥터'라고 부른다. 이 시원한 바람 덕분에 여름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오만큼이나 정감이 듬뿍 묻어나는 이름이다.

조곤조곤한 거리들과 넓은 공원, 그 앞에 펼쳐진 인도양의 푸른 바다, 파스텔 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건물들, 이름에서부터 커피향이 풍기는 '카푸치노 스트립'과 흥겨운 저녁을 책임지는 생맥주공장 '리틀 크리처스'도 프리맨틀을 낭만 도시로 만들어주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명소들이다. 프리맨틀의 항구에 서있으면 저 모퉁이 뒤로 우아한 모자를 쓰고 풍성한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가 나타날 것 같은 재미있는 착각에도 빠진다.

프리맨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거리를 달리는 빨간색의 귀여운 트램에서 시작한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출발하는 트램은 프리맨틀의 유명 유적지들을 모두 보여주는 종합선물세트다. 프리맨틀감옥, 시장, 기념탑 등을 45분간 설명과 함께 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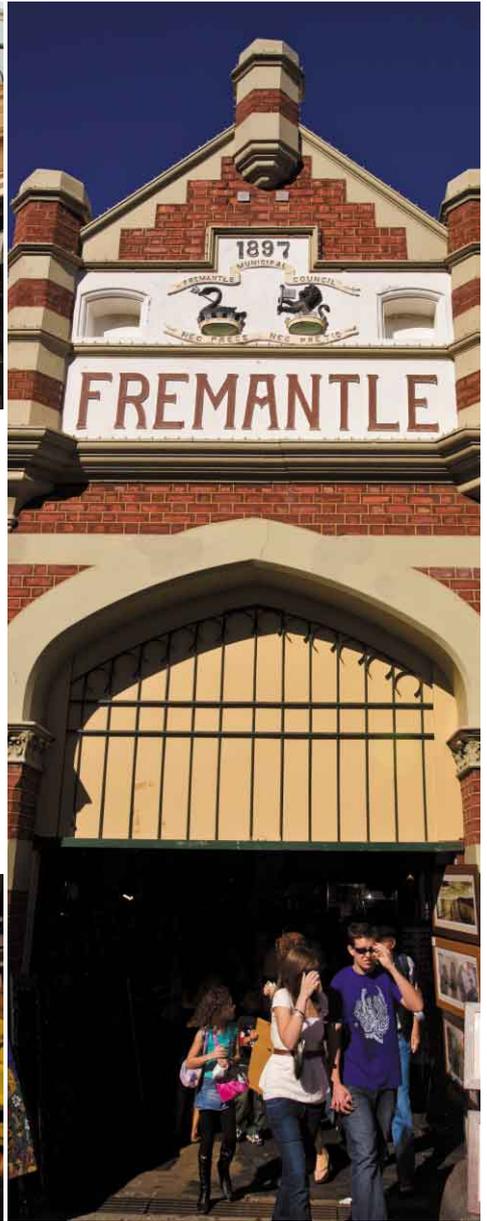
## 은은한 커피향과 편안한 이야기를 즐기는 카푸치노 거리

여러 명소 중에서도 카푸치노 거리는 프리멘틀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카푸치노 거리는 수많은 카페들이 각자의 커피 뽑는 기술을 뽐내며 카푸치노를 만들어 내놓는 노천 카페촌이다. 살랑살랑 인도양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은 카푸치노 거리의 커피 향을 도시 구석 구석에 퍼뜨려 준다. 신문을 보면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부터 엄마와 함께 코코아를 마시는 귀여운 꼬마, 마이클 클라이트 류의 소설에 몰두하고 있는 청년까지, 하나같이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다. 그저 그곳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사람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뒤편이든 프리멘틀의 최고 매력은 베흘시장은이다. 시장 역시 도시만큼이나 자그마하지만, 동화책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재미가 여기저기에서 퐁퐁 터져 나온다. 시장은 시내 한가운데 있는 '189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 클래식한 건물 안에 있다. 항구도시라고 강조라도 하려는 듯, 입구엔 온갖 물고기들이 팔딱거리는 생선가게가 있다. 생선가게 총각의 환한 미소를 받고 한걸음 들어가면 호주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장식품·예술품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호주의 상징'인 부메랑. 호주 원주민 애버리지니의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순수 부메랑 디자인을 한다는 주인아저씨가 각 문양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앉아 부메랑을 만드는 시범까지 보여준다. 결국 주인아저씨 '카리스마'에 반해 지갑을 열고 만다.





# Australia Fremantle



67

## 시장에서 펼쳐지는 거리공연

프리맨틀시장은 그 안쪽만큼이나 밖도 흥미진진하다. 장이 열리는 주말이면 거리의 예술가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험크처럼 생긴 남자가 테니스채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 하면, 커다란 중절모를 쓴 사람이 동그란 링을 이용해 '불쇼'를 벌이기도 한다. 공연도 즐겁지만 그 공연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프리맨틀만의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는 항구에도 꼭 나가봐야 한다. 수많은 배와 멋들어진 요트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즐비하게 서있는 요트는 괜히 마음까지 들뜨게 만든다. 이곳을 가장 멋지게 즐기기 위해서는 일몰 때 가야 한다. 인도양의 푸른 바다 위로 해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그려내는 멋진 색의 하늘을 보고 싶다면 훌륭한 예술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